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가정준 프란치스코, 이수진 아녜스  
다음주 독서: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김대진 하상바오로,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2 구역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96

교무금: \$ -

합 계: \$ 196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 <공동체 모임 알림판>

### 금요 성서모임

각주 금요일 7시 사제관

###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복음 이어서)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오늘의 묵상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머니 모니카와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말합니다. “현세의 것들은 모두 인간의 영혼에 맞지 않아. 그러기에 사람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참해지고 곤궁해지게 마련이야.” 어머니의 이 말에 아우구스티노가 반박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일 이 세상의 것들을 풍족히 소유한 데다 자기 욕심을 제어할 줄 알고 인생의 즐거움을 품위 있게 적당히 즐길 줄 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니카가 대답합니다. “아니, 아니야! 이 세상 것은 절대로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이 말에 아우구스티노가 매우 기뻐하며 외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가! 그렇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라져 버릴 것들을 초월해야 하며, 영원히 남을 것을, 설사 운명이 바뀌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런 특질을 지니셨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레몬 크리스티아니, 『아들아, 내 치마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대답처럼, ‘적당히 절제할 줄 알고 품위 있게 즐기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갇든 영혼까지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며 말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이대로 살자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모질게 나무라십니다. 베드로처럼 ‘적당한 것’, ‘좋은 게 좋은 것’에 머물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요. 영성 생활에서 정지된 상태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적당히 살라.’고 속삭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2 주일]

2011 년 8 월 27 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0,7-9

<제 2 독서> 로마서, 12,1-2

##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 알렐루야.

## 복 음 환호송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 복 음

마태오복음, 16,21-27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갑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시작: 26 봉헌: 404 성체: 183 파견: 453



## 생명의 말씀

###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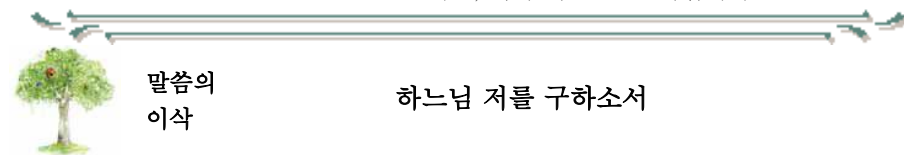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사제피정에서 지도신부님께서 그날 묵상할 주제를 주셨습니다. 자연스레 대신학교 입학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제가 될 결심을 했으니 당연히 결혼과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했지요. 어린 시절 막연히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신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학장 신부님께 외출 허락을 받아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네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한 것은 사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6·25 전쟁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주었으면 했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말이다. 신부님은 신자들이 하느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분이니 괜찮다. 부디 착한 사제가 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유독 내게 열성을 쏟으셨던 아버지의 속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어머니교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가셨으니 ‘착한 사제가 되라’는 말씀은 결국 아버지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나와 아버지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지침도 덧붙이십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 16,25). 자신을 버리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느님이나, 혹은 세속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선택은 항상 하느님의 길 또는 나 자신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있고 참다운 행복의 삶이 되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지하고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미 증거해 주셨기때문입니다. 참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

## † 공지사항

- 주소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역장이나 김주현 안토니오에게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캠프사진이 페이스북 성당그룹에 올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성당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름캠프 사진을 CD로 받길 원하시는 분은 각 구역장님들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D는 무료이고,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다음주 9월 10일 (토요일)에 추석 야외 미사를 드립니다. 장소는 Elver Park Shelter #1 (1240 McKenna Blvd)이고, 미사 시간은 11시입니다.



## 말씀의 이야

###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며칠 전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월 칠석을 보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칠석 이야기는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칠석이면 일 년에 하루를 만나 이별해야 하는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슬픈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 했다. 진짜 비가 오는지 늘상 확인해보려 했지만 음력 달력이라서인지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그날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슬픈 사랑 이야기가 사라졌던 것 같다. 근대에 이르러 과학과 자본주의의 시대가 꽃피운 사실을 우리는 지금 너무도 분명히 겪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 칠월칠석 이야기를 듣던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족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있는가. 삶은 더 풍족해졌지만 꿈과 사랑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아쉽게도 우리들은 마음속의 희망이나 사람으로서의 행복, 의미로 가득 찬 하늘을 잊어가고 있다. 자본의 풍요로움과 과학의 객관적 지식 앞에서도 우리는 존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근대 문명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이나 과학이 말하는 진리는 신화와 예술,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실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이들이 학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신화나 예술, 믿음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인간으로서 필요로 하는 진리를 훨씬 더 잘 알게 한다는 말이다. 분명 하늘과 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는 천문과학적 지식과는 같지 않다. 아니 천문과학적으로 관측하면서 바라보는 우주 어디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별 이야기는 없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하고 노래하던 그 꿈과 설렘에 관해서 우주 과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달에는 계수나무도 옥토끼도 없다. 달은 그저 차가운 혹성일 뿐이다. 인간의 역사는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서 달라진다. 무미진조하게 우주에 자리한 수많은 별을 모아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에 이야기를 덧붙였던 그 어느 날, 바로 그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인간은 동물의 단계를 넘어 사람이 된 것이다. 과학과 자본은 인간의 실용적 삶에 관계하지만, 예술과 이야기,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삶과 그 진리에 대해, 나아가 우리 자신에 관계되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만 객관적인 삶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존재의 진리에 눈 감는다면 우리는 반 쪽의 삶을 사는 것이다. 외적 삶과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진정 행복해지며, 우리가 바라는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지난 칠월 칠석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아름답고 슬픈 비가 내렸다.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